“가톨릭 대회 대응은”…치열한 종무행정 점검

232회 중앙종회 정기회 종책질의

특정종교 세계대회 종단 대책 등 12건 서면 접수…현장질의 이어
나눔의집 · 충정사 폐지 문제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1월 6일 속개한 중앙종회 정기회에서는 종무행정을 점검하는 치열한 종책질의가 오갔다.

11월 6일 오전 10시 속개된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종책질의로 시작됐다. 서면 접수된 12건 외에도 현장에서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선광 스님은 가톨릭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100만명 모인다는 제하의 종책질의에서 종단 대응방안과 대책 유무를 물었다.

선광 스님은 “특정종교 단체 대회에 직간접적으로 1조원이 지원된다고 추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종교계와 사회계에 선교 파급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정종교 선교 전략에 대한 종단의 입장과 대응 전략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일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국고보조금 예산이나 지자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원 절차나 형식, 내용 등에 있어 문제가 확인되면 종단 내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업 형태가 다양해 예산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언급하기도 한 성화 스님은 “세계청년대회 행사에 대해서는 종교간 형평성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되 종단적으로는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전법 강화를 중심으로 종단적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면서 “미래불교를 위한 전법역량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는 종단적 대응기구 설치와 관련해 교구본사와 중앙종회, 신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광 스님은 달라이라마 초청 법회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특정종교의 선교 전략을 묵인해선 안 된다”고 강력 주장했다.

정운 스님은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 종단 출련령’에 대해 질의하며 삼보정재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귀속에 대한 법률 개정 계획에 물었다.

성화 스님은 “국회 정각회 등과 종단 유원장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가법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입적한 스님 재산을 원천적으로 종단에 귀속시키는 부분은 삼보정재 망실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가법령 등 제·개정은 사회 각 계층의 의견 수렴 및 다양한 이해관계의 고려 등 여러 사항이 검토되므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접수된 질의 외에도 현장 질의도 여러건 이어졌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 나눔의집에 대한 향후 운영 계획을 묻는 질의에서 성화 스님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나눔의집이 불법양로시설로 과태로 처분을 받았고, 보조금을 반환하며 이로 인해 앞으로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설명하며 “나눔의집은 더 이상 양로시설로 운영될수 없지만 조계종은 설립 취지를 살려 할머니들이 남긴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는 역사관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인 스님이 “종단 안팎으로 관심이 많은 나눔의집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지적하자 성화 스님은 “전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금산사 등과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폐사가 검토된 남산 충정사도 언급됐다. 제정 스님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곳으로 박원순 시장 때부터 인수가 검토된 곳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냐”고 개탄했다. 성화 스님은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하려 했지만 공공재산은 매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전승관도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충정사는 감정가 200억원에 달하며, 기채를 받아 매입한다고 해도 월 이자로 4000만원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종단은 현재 부지를 매입하기도, 건물을 짓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미등록 사찰에 대한 관리, 신촌 봉원사 토지 활용, 징계자 사후관리와 미등록법인 관리, 3교구 신흥사 말사 낙산사 특별감사 등이 종책질의로 올랐다.

태고종 강원 총동문회, 학인스님에 장학금

11월 6일, 장학금 수여식 개최
명현 · 명효 · 무상 · 법견 스님에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가 후학들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인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회장 성관 스님)는 11월 6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2024년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회장 성관 스님은 심사를 거쳐 선발된 성적 우수자 명현(대교과)·명효(대교과)·무상(사교과)·법견(사교과) 학인스님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성관 스님은 “스님들이 수행을 잘하는 방편으로 강원을 다니는데 얕은 지식으로 잘못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지행상방 분복하비(志行上方 分福下比), 뜻과 행실은 나보다 나은 사람과 견주고 분수와 복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라는 선인의 말처럼 하심하는 수행자의 덕목을 잘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강원을 졸업한 종단 중진스님들이 후학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전달식을 준비했다”며 “중앙승가강원의 노력이 종단 차원의 공감으로 이어져 모든 종도가 배우고 익히는 일은 일상다반사로 여기는 풍조가 보편화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장학금을 받은 장학대상자들은 총동문회 선배스님들의 진심어린 격려를 계기로 더욱 부처님 교학의 깊은 묘리를 익히고 깨치는 일에 전념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원장 재홍 스님도 “교육의 효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겠지만 교육·장학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학인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종단도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김내영 기자

진각종 32대 통리원·교육원 집행부 구성

능원 정사, 통리원 · 교육원 인사
총무 법운 · 교무 수각 정사 등



11월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가 제32대 통리원, 교육원 집행부 인선을 단행했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진각문화전승원에서 통리원·교육원 부실장 및 국장에 임명식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임명식에서는 통리원 총무부장 겸 서울교구청장에 법운 정사(수원 유가심인당 주교)가, 교육원 교무부장 겸 밀교신문사 편집인에 수각 정사(포항 보정심인당 주교)가 임명됐다. 또 재무부장 수혜 정사(대구 의밀심인당 주교), 포교부장 겸 비로자나청소년협회장 원영 정사(서울 관음심인당 주교), 교육원 교법연구실장 효광 정사(대전 응화심인당 주교), 진각대학원 교학처장 석인 정사(인천 덕화심인당 주교)가 임명장을 받았다.

이어 국장급에는 △통리원 총무국장에 혜심 정사(청주 각계심인당 주교) △교육원 교무국장에 의성 정사(성남 대원심인당 주교) △통리원 기획국장에 학봉 정사(제주 식재심인당 주교) △사서국장에 도원 정사(고양 밀엄심인당 주교) △건설국장에 인공 정사(제천 장엄심인당 주교) △포교국장에 일연 정사(창원심인당 주교) △전산미디어국장에 보당 정사(서울 명선심인당 주교) △예경국장 겸 서울교구 종무국장에 도연 정사(서울 법륜심인당 주교), 교육원 교법연구국장에 대경 정사(대구 낙산심인당 주교)를 각각 임명했다.

능원 정사는 “전 종도가 새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에 걸맞게 각자의 자리에서 종단의 발전을 위해 정진해달라”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해인총림 방장에 대원 대종사 추대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에 학산 대원대종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원한 제232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추대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학산 대원 대종사〈사진〉는 9월 30일 열린 ‘해인총림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된 바 있다.



대원 대종사는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평생을 걸쳐 노력해 온 대표적 선지식이다. 1956년 상주 남장사에서 고암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1958년 사미계를, 1962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6년 일대시교를 이수한 뒤 혼해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은 대원 대종사는 이후 21년간 제방선원을 다니며 선지식들의 회상에서 용맹정진했다. 2001년 오등시민선원을 개원한 대원 대종사는 간화선법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진력해왔다.

2014년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2022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됐다. 임은호 기자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만장일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11월 6일 속개한 제232회 정기회에서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비구)·명사(비구니) 법계 특별전형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대종사 법계 대상은 환성 스님(직할교구), 혜강 스님(직할교구), 심경 스님(용주사), 정완 스님(용주사), 성도 스님(용주사), 성월 스님(용주사), 정암 스님(월정사), 삼지 스님(월정사), 삼보 스님(월정사), 현각 스님(월정사), 무이 스님(월정사), 지욱 스님(직지사), 인호 스님(동화사), 지영 스님(은해사), 법일 스님(은해사), 운성 스님(불국사), 종본 스님(해인사), 항결 스님(해인사), 석공 스님(범어사), 범산 스님(범어사), 정만 스님(범어사), 상경 스님(통도사), 정수 스님(통도사), 평상 스님(금산사), 지현 스님(송광사), 보각 스님(대흥사), 재연 스님(선운사) 등 27명이다.

명사 법계 대상은 선광 스님(월정사), 명주 스님(해인사), 재근 스님(통도사), 법륜 스님(금산사), 일지 스님(선운사), 성수 스님(선운사) 등 6명이다. 이날 종회의 동의를 받은 스님들은 법계법 제12조에 의해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종사·명사 법계를 품수 받는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영캠프

일 시
2024. 11. 12.(화) 오후 3시 - 6시

장 소
동국대학교 WISE(와이즈)캠퍼스 문무관

추억공



영캠프는 자승 대종사의 깊은 뜻에서 비롯된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불자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셨으며,
동국대학교 돈관 이사장 스님께서 이 염원을 이어받아 영캠프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주셨습니다.
불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새롭게 느끼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dongguk UNIVERSITY WISE CAMPUS

영캠프는 동국대학교 WISE(와이즈)캠퍼스 학생기획위원단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행사입니다.